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마가복음 16:1-8)

좀 이상한 이야기,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전혀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쉬쉬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놀라운 방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마가복음의 끝부분이 느닷없이 끝을 맺고 있어서 그동안 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당혹스러워 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허공에서 멈춰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마지막 문장은 그냥, "그들은 무서웠던 것이다"(에포분토 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보는 성경번역들은 한 줄 정도 뺀 후에 이어서 그 대안으로 '긴 끝맺음'인 9-20 절을 추가해서 이어가거나, 그 내용은 난하주에 넣어 놓기도 합니다. 그 구절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된 부분이 마가복음에 본래 속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추가된 부분은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들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 세기의 학자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4-5 세기 학자들인 유세비우스나 제롬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고대사본들에 그 긴 끝맺음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훨씬 최근에 만들어진 류모 프로젝트 비디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상영하게 될 마가복음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끝맺음들 중에 짧은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대든지 현대든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마칠 때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잡아매는 겁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끝부분이 느닷없이 끝나면 그런 것은 빼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잖아도 왜 그 때 그 여자들이 영원히 말없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사도들에게 본 것을 얘기했고, 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와서 봤고요...

사실, 놀라운 일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부분이 느닷없이 그렇게 끝난 게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충격파가 그러한 돌연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그것이 그리고 있는 사건이 이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정말이지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1-4 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향유를 사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문화에서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어떻게 옮겨야 하나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은 다만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모셔야하느냐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슬픔에 싸여 애도하고, 향유를 바르며, 흐느낄 그런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5-8 을 보면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겪은 일들은 전혀 그런 말들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봤고요, 그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뛰쳐 나와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는 이 이상스러운 끝맺음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활장면에 이르러 그의 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그게 마치 아직까지 여전히 생생한 아직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건에 대하여 그 황망한 느낌, 아주 희안한 느낌을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을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그것은 한 책을 끝맺는 것으로는 아주 이상한 방식이다.

(God with Us, p.77)

이것은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보고를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볼 수 밖에 없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저 사실이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 년쯤 지난 다음에 그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뜻을 살려가면서 써놓은 문학적 명상의 결과물 같은 것이 아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 이야기에는 가공되지 않은 '생생함'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 (God With Us, p79)

마가복음은 이렇게 느닷없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생생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그들이 느낀 공포감은 예수님이 일찍이 폭풍을 잠재웠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반응과 같은 데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봤을 때의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무덤들 사이에서 사는 광인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그 여자들은 슬픈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경험한 그 새로운 일의 충격으로 그들의 세계는 송두리째 뒤엎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제 길을 찾아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묻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동안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길들여놓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숨죽이게 하는 그런 것인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끝)